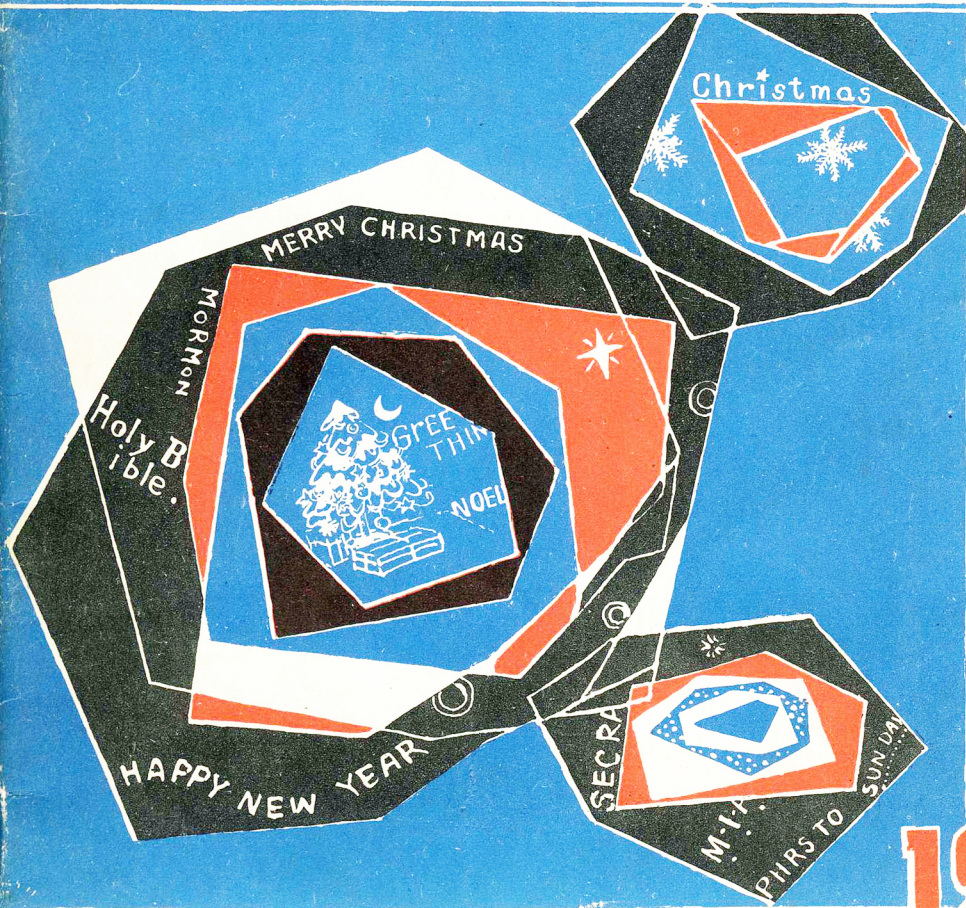


성도의 벗

크리스마스 특집



12

목차

권두언(선교부장)	2
예언자의 말씀(대관장)	8
리사도 한국 성도들에 격려편지 주시다	13
나의 제언(이호남 지방부장)	16
신앙의 길을 찾아서(이 영범)	20
살고 있는 방식과 살아야 할 방식(박 묘 자)	23
수상 —— 꿈을 사도하는 뜻으로(김석 중)	27
암 케이트	29
중참대회 중계	31
1965년 마지막 지방대회	33
나에게 마이크를	36
각 지부 소식	38
고마 상식	42
문제 풀이	43
사랑하는 조국의 형제 자매들께(홍 우 식)	44
크리스마스 칸타타 광고	46

* * * *

표지 설명

서부지부 김석중형제가 그려주신 성도의 벗 표지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卷 頭 言

Editor's Page

偉大한 委任

宣敎部長 裴 一 文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위대한 위임은 지상의 모든 부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교리확성약 제1장에 강력히 제시되어 있다:

... 주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 아무도 피할 자가 없노라: 그러므로 볼수없는 눈이없고 듣지못할 귀가 없으며, 관통하지 못할 마음이 없노라.

그리고 경고의 음성이 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니 이들은 내가 이 마지막날에 선택한 자들이니라.

그리고 저들이 나아가리니 아무도 저들을 막지 못하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기 때문이니라.

신성한 명령은 "동서 남북으로 종들이 보내어져"

... 모든 사람은 하나님인 주 곧, 세상의 구세주 이름으로 말하고,

믿음을 또한 지상에서 증진시키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우며,

내 복음의 전부가 세상의 사방에, 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십이사도회의 지시하에 수행될 말일의 대 선교사 프로그램의 훌륭한 전망은 파리 피. 푸라트 사도에 의해 시토 쓰여졌다. 그것은 아직도 교회의 찬송가책에 포함되어 있는바, 유럽,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그리고 바다의 섬들속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너희 선택된 12사도여, 너희가 받은 것은"

너희 선택된 12사도여, 너희가 받은 것은,

땅에서 땅으로, 바다에서 바다로,

하늘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 전할,

이 마지막 성역의 열쇠들이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그 소식이 올리고,

컬럼비아의 행복한 은 땅에 올리고,

그리고 그 소식이 유대인에게 이르기 전에,

유럽의 해안에 세울 예비를 하라.

유럽의 읍과 도시가, 천사들이 가져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라.

멀리나 가까이 있는 이방인 나라들이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마음을 예비케 하라.

아프리카와 인도의 대 평원도, 복음이
굴러갈 때 그 소식을 들어야 하며,
암흑이 통치하고 고통이 지배하며, 폭군이
다스리는 곳에서도 그 소식을 들을찌니라.

모든 지대의 너희 섬들이여, 귀를 기우리라
모든 나라땅이 그 소식을 들어야 하노라
오래동안 알려지지 않은 잃어버린
방언과 백성도 곧 찾아지리라.

다음엔 다시 아시아가 들을찌니
그곳에서 천사들은 처음에 소식을 제시했고
영원한 기쁨을 보존하여,
땅은 기쁜 증정물을 가져오노라.

나라들은 기쁜 소리를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귀를 기우리리니
호산나소리 다시 지상에 울려 퍼지고
그때에 메시야는 통치하러 오시리라.

이처럼 위대한 시적인 설교는 니파이의 예언과 일치한다:

그러하도다, 그리고 모든땅이 주님의 구원을 보리니
예언자가 말씀한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은
축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부리감 영의 예언은:

시온은 넓혀질 것이며 마침내는 이 지상을 모두 덮으리라. 지상에는 구석이나 모퉁이가 없을 것이나 시온에는 있으리라. 그것은 모두가 시온이 되리라.

그것은 또한 말일에 관한 니파이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며, 이것은 1965년 1월에, 12사도회의 에즈라 테후트 벤슨 장로에 의해 인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 선교부장으로 있는동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인용해서 말한 것이다. 니파이는 우리의 시대를 시험으로 보고 이렇게 말했다:

... 나는 어린양의 교회를 보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었고 또한 지상의 모든곳에 있었노라.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선교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특색은 선조 야곱의 후손들을 찾아내며, 침례 주려하는 노력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선택된 종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광대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아제아의 멀리까지 흩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의 가장 최근의 특별한 가르침은 12사도회의 조셉 윌딩 스미스 회장이 1962년 부리감 영 대학교에서 하신 헌설에서 아마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 회장께서는 언급하시기를 그가 1955년에 극동을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는 한국을 봉납하였다고 했고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귀국한 후에 여러번 내가 그곳 동양의 국가에 이스라엘의 어느 혈통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내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중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피가 그곳에 스며들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듯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었다.

그때 스미스 회장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구절을 읽으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입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22 : 17에서:

내가 네게 큰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삼으리라.

다시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셨다:

이제 나는 동양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줄 충분한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의 비 그리스도인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음을 의심하는 희의를 몰아내기 위하여 스미스 회장은 물론경, 야곱서 6장에 있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참조하였다. 여기서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참조하였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지체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까지도" 퍼져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제 거기에 당신의 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극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갈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에게 주는 답변이다. 답은: 그들은 그 나무의 가지이며 이스라엘의 지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렇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신바를 바로 행하셨다. 그는 그들을 지상의 모든곳에 분산시키셨다.

재미있게 번역해 봅시다.

원문을 그대로 외워두어도 재미있겠죠?

A smile is a curve that can set a lot of things straight.



SMILE



— 預言者의 말씀 —

여섯개의 작은 수상

大管長 데이비드 오·백케이

복음은 어느 모로 보나

회복된 교회가 가르치는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누구라도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모로보나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현 입장에서 볼때 그것은 매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며 교회 회원들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장래의 희망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에 관한 교훈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여하

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라도 교회의 회원들이 부끄러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복음의 원리들을 공정하게 검토한다면 몰론교리는 모두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위와 권능

신권이란 원래 신회가 소유하는 능력이며 권능이다. 그것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위임된 권능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위임된 권능은 원래의 그것과 동등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신권은 봉사를 의미한다. 우리가 "... 불멸과 인간의 영생을 실현시키는 이 일은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고한 절대자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이는 신의 근본 뜻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일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신권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언제나 한 사람의 작위로서가 아니라—그가 신권을 행사할 때 그렇게 보이지만—하나님을 대신하는 권능이며 불멸과 인간의 영생을 실현시키는 주님을 돕기 위한 의무로서 그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 영사나 공사 혹은 대사토 외국에 파견되어 정부를 대표하게 될 때 그는 국민의 대표라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책이 주는 기타 여러가지 임무도 알아야 한다.

이와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법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권능을 인식할뿐 아니라 자기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일성도는 햇불처럼

현 세계가 성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방종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인품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불결한 생각은 불결한 언어를 낳고 불결한 언어는 불결한 행동을 낳는다. 교회의 가트침중, 살인 다음가는 죄악은 간음과 성적인 불순이다. 말일성도들이 믿는바 순결을 참으로 지켜살고 다른 여러면에서 자기절제를 하여 참다운 인격을 키운다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봉화불이 될 것이다.

아이와 가족과 가정

가족은 아이에게 이름을 부여하며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위치를 부여한다. 아이는 자기 식구들이 친구들의 가족만큼이나 훌륭하기를 바라며, 자랑스런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가트킬 수 있고 어머니에게서는 늘 격려를 받고 싶어한다.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있을때,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깨끗한 것을 모두 접할

수 있게 생활한다는 것은 한 어머니의 의무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기의 본을 보고 손색없는 시민이 되고 교회에서는 착실한 성도가 될수 있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아이는, 가정은 안식처이며 외부세계로부터 오는 악과 위협을 막아주는 곳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의 단합과 화목은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요소가 된다.

가족의 밤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은 따스한 가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원리와 교훈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교리와 성약 8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원리이다. 무엇보다도 매일 이 계명을 지켜 생활한다는 것이 참으로 깨끗한 인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참된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참기 어려운 식욕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욕구를 완전히 제어하고, 차, 커피, 담배, 또는 술에 탐닉하고 싶은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실제 인물을 보일 수 있을 것이며, 나는 것처럼 정신적인 열성과 욕망을 제어하는 힘을 쌓아온 사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반면 남몰래 혹은 공공연하게 이런 욕구 충족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들은 정신적인 격정에 유혹을 받을 때 자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성의 소유자가 되고 만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인정하고 한결같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도마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한 20 : 28)라고 한것은 별뜻도 없는 그런 의침은 아니었다. 그 앞에 계시던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였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는 신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의 아버지(하나님)는 그와 똑같은 인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수증하기란 그리 어려운게 아닐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 (요한 14 : 19)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분은 신으로서의 이상을 지녔을 뿐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적인 분이 라는것도 인정해야 한다.

참 기독교 신앙은, 우주도 물질과 운동 법칙과 힘의 단순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지 않고(반대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예지의 산물이라고 간주한다.

“리”使徒 韓國 聖徒들에게 激勵 便紙 주시다.

스펜서 제이 팔머 부장이 한국 선교부의 신임 선교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11년전 그와 함께 겪었던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당시 우리들은 대관장회에서 내린 지시를 받고 한국땅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곳곳을 휩쓸고간 커다란 전황으로 거의 황폐해 있었으며 따라서 선교사들이 거할 집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그 이듬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지명을 받고 한국에 가서 선교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한국 땅을 헌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여러분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왔으며, 한국의 여러 지도자와 회원들이 지닌 높은 자질에 대한 마음흐뭇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처럼 김박사님이 처음 수고해 주시고, 선구적인 일을 해내신데에 깊이 감사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바입니다. 그분이 불의에서 거하였으나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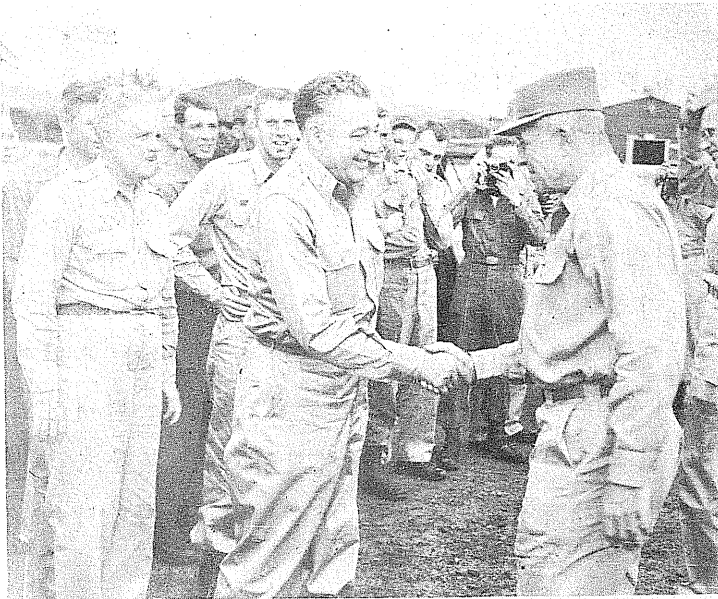
여러분께 나의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미 육군의 군목으로서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게 된 그분의 지도하에 힘차게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그의 사랑하는 부인 및 가족들을 알게하고, 처음부터 뜻깊었던 그 선교사업이 그의 지도하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여러분이 보여주신 신앙과 헌신에 나의 치하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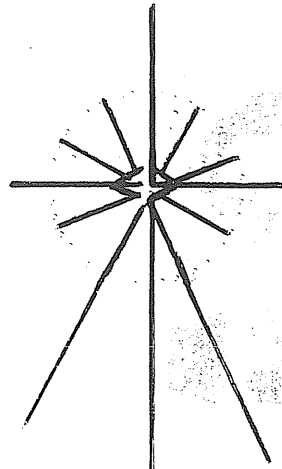
해롤드 비. 리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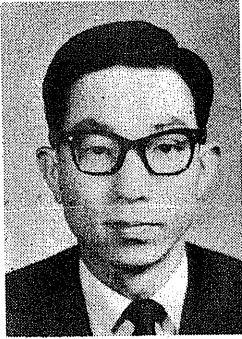
* 1954년 9월 4일 부산 미군 교회에서 부산지구 사령관 리차드 에스. 위스컴브 장군과 악수를 교환하는 해롤드 비. 리 사도 그 어깨 넘어토 스펜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당시 군목) *



Merry
Christmas



축 · 성 · 탄



나의 提言

地方部長 李 虎 男

모든 성도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며 알아야 할 것인가를 다같이 생각하며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학, 역사, 발명가, 등에 관한 원리나 연대, 등을 질문하면 답할 수 있으나 만일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현세를 마친 후 우리들의 갈곳은 어디인가를 질문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하여 이에 관한 많은 연구를 오랜 시일을 두고 시도한 철인, 사상가, 작가, 등이 허다하나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은 역사가들에 의하여 기술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스피어의 작품에 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그는 작품속에서 "인생이란 백치에 의하여 아무뜻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의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인간들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3대의 의문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실패 많은 해를, 많은 인간들이 옳은 태도와 방법을 무시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지식과 능력만으로서 해답을 얻고져 노력함으로서 실패와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3막짜리 연극으로 바해 봅시다. 제1막은 우리들의 전세의 생활이요. 짧은 육신의 현세상을 제2막으로 하며 영원의 내세가 제3막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극장에서 제1막이 끝난후 2막만을 감상하고 3막을 보지 아니하고 퇴장하면 무의미하며 그 전체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현세만을 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논함에 있어서 현세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의 생을 통하여 명백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 좁은 현세로서 시작과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세에서 즉 육신의 세계로 오기전에 천국회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에는 죄가 존재하지 못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선과 악이 존재하며 또한 이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세에 우리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는날의 젊은이들이 성장하면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인간들은 처음으로 완전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을 얻게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의 세계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세계에 보내시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의 노력으로 인하여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영생이며 또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생활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식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크리스찬들의 태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와 학위 등을 구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간 많은 회원들이 그들이 섬기기로 결정한 주인 곧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멀리 떠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인식함으로써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구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칙례를 받는것 만으로는 구원을 얻지못하며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자기의 구원을 획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돌몬 성도들의 독특한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많은 종파와는 큰

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한 자람만을 되풀이하며 실제 행동으로 그 뜻을 표하지 않을경우 과연 부모님께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이와같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닌것입니다. 믿음을 기초로한 의로운 행동과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로 교회는 기사, 의사, 법관, 교수 등을 양성하는 대학보다 더 위대한 대학 즉, 구원을 가르치는 대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의무를 배워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행동으로 옮깁시다.

우리가 두엇을 먼저 배워야 하며 알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를 떠나 생활을 계속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느끼실 때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지상에 오기전에 거하던 옛집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옛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실로 설명키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거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뜻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좋은 태도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 2000년 1월 15일 주일 예배 설교
주제 : 사랑과 기쁨의 생활
본문 : 2000년 1월 22일 주일 예배 설교
주제 : 사랑과 기쁨의 생활
본문 : 2000년 1월 29일 주일 예배 설교
주제 : 사랑과 기쁨의 생활
본문 : 2000년 2월 5일 주일 예배 설교
주제 : 사랑과 기쁨의 생활

信仰의 길을 찾아서

이 영 범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을 하게되던 대학교 사년때의 일이었다. 교회당국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때 서슴치 않고 나는 부름을 수락하였다. 이제 앞으로 만 이 년간 어디고 간에 교회에서 보내는 곳에가서 자기 경비를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인 나로서의 사명인 것이다.

나의 학교동창들은 과학을 공부한 과학도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단하니 정신이 돌아도 이만 저만 돈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양과같이 순하시든 과 주임은 졸업하고 난후에는 무엇을 해도 좋으니 졸업이나 한 후에 결정을 하라는 것이고 이미 고인이 되신 학생처장께서는 내가 손수 사년동안을 기른 학생이 이렇게도 지각없는 판단을 내린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오히려 나를 애처롭게 생각하셨다.

누구보다도 나의 새 사명은 나의 부친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아들놈 힘드려 공부를 시켜서 잠성한 후 세상말토 출세도 하고 성공하기를 바랬드니 기껏 한다는 것이 답답하기짝이없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학교를 집어치우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해도 못할 일이며 용서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자식을 어떻게 할소냐?

세상 사람의 판단에 의거한다면 분명히 나는 돌았다. 나도 돌은 것을 자인한다. 그러나 나쁜 방향으로 돌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생활의 어두운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새 방향으로 돌았든 것이다. 표현 양식과 그 노출 방법에 있어 다를 런지도 모르지만 사춘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에게는 하나의 고비가 있다. 이 기간에 나는 무엇인가 허공에 떠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도 했고 많은 철입의 생각을 찾아 보기도 했다. 내 마음속에 번민은 더욱 커만갔다. 나 자신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뜻이 있다면 무엇일 것이며 또 궁극에는 새 생명이 이 땅에서 커진 후 어디로 갈 것인가? 오랜 동안의 침묵과 암흑의 밤 내 생활속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허덕이던 그 어느날 나는 문득 하나의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이 바로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다. 나는 신의 존재를 엄숙히 의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산 종교적 체험을 갖게 되었다.

정치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연애도 그러리라. 인간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을때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닐 수 없는 초인간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어느 세계에서도 느낄 수 없는 법열과 희열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거름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일때에는 그 삶은 가장 순화되고 고귀한 삶인 것이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벌거벗은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이다. 오랜 동안 원했던 그것을 나는

찾은 것이며 그것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부서트릴 수 없고 또 그 누구의 힘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제 그것은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다. 세상의 명성도, 금전도, 권력도 나에게 이제 다 필요가 없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었다.

선교사업을 마치고 옛생활에 다시 돌아온지도 벌써 칠년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학생이건 사회에서 일하건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건 나는 선교생활의 그 정신으로 백년이 하루같이 똑같은 헌신적 정신으로 오늘날 까지 살아왔다. 십년 전 기독교인이 된 그 때보다는 또 칠년 전 선교사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 때보다는 나는 생각도 넓어지고 견문도 넓어졌다고 생각이 되며 세상도 그 때보다는 더 발전되고 더 복잡해진 것 같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내 속의 하나의 신념은 더욱 깊어간다.

"밤 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이 항해하는 사공들의 길잡이가 되었듯이 나에게 새 희망과 새 생명을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며 사람마다 이 숨막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에 평강이 깃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보다 밝은 사회가 된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다."

살고있는 方式과 살아야 할 方式

박 묘 자

지성인이란 정의를 불란서의 게스틀러라는 문학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텔리겐차란 살고 있는 방식과 살아야 하는 방식 사이에 어떤 관련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곡예사가 줄타기를 하듯 현기증을 느끼면서, 인텔리겐차라고 자부하며 살아야 하는 방식에 자칫 썩어빠져다보면 어느새 다른 곡예사는 앞질러 줄을 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줄을 다른 곡예사에 뒤지지 않고 무난히 잘 타고 끝까지 갈수있을까? 이는 철저한 현실참여, 현실주의의 사고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영원히 길의 짐집다리인 이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어떤 면에서나 잘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나는 오늘도 무거운 머리를 이고 추수가 다 끝난 하얀 달밤의 들길을 시원한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지나, 또는 녹진 녹진하기만 한 빛속을 퇴근하여 올라오며 생각한다.

지난날을 도리켜 보면 공부를 한답시고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주신 몽텝이의 돈을 임마는 혹시 날치기 당할까 박 밤새껏 속옷에 누비다 시피 깨메주신 것을 입고 서울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문득 시간과 부모님의 사랑에 참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중반기 지나서 부터였다. 그리고 대학생활

에 익숙해진 여대생들은 오색무지개를 타고 제각기의 꿈속에 잠겨 있었을 때 나는 내 인생에 무슨 포인트를 발견하기 위해 무척 우울했다고 생각한다. 도봉의 보대에서 넓적바위에 이르기까지의 힘찬 능선을 타며, 또는 빛속에 배낭을 메고 몇십리길을 감행을 하면서, 또는 찌는듯한 더위속에 양철지붕을 한 연구실 좁은 방에서 고전과 씨름을 하면서 또는 승방을 찾아 큰 절간의 문을 두들겼을 때도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때문에 공부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도시 알지를 못했다. 또 많은 세상적인 것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하게 위태로움을 느꼈다. 분명히 어디엔가는 이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시리라 믿고 나는 계속 찾았고 그분을 찾아야만이 내 조그만 세상적인 계획의 안전성을 얻을 수 있지 그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감리교계통의 대학생활을 4년, 장로교계통의 여학교 교사를 몇년째 접어들 무렵 나는 기독교에 대해 일반적인 삼시에는 어느 정도 몰들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낡고 퇴색되어져 버린 설교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우연히 나의 어린 제자로부터 생전 들도 보도 못한 물문을 소개받았고 물문경을 파고들기 시작하여 그 웅대한 서사시 속에서 인간이상의 힘을 발견하였다. 나는 나의 생활의 밀바탕이 되는 직장의 엄격한 종교적인 의무를 외면하고 목사의 눈을 피해 가며 물문경을 읽었고 그 속에 나의 집 가치관을 걸었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더러는 많은 것들을 왜 그렇게 올라미를 둘러쓰고 사고의 범위를 좁히느냐고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너희들 모두 평범한 자연인으로 결혼해 가지만 난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내 얘기가 해가 어떻게 해서 뜨느냐고, 또 꽃이 손으로 벨려서 피게도 못하지만 누가 그렇게 피게 하느냐고 물는다면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고 물어온다면 나는 환한 얼굴로서 분명히 대답해 주고 싶었고 내 무릎아래에서 내 얘기는 맑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슴의 눈빛과 같은 눈으로 감격하게 되길 바랐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지키는 검강한 사람, 십계명을 지키는 덕망 높은 사람, 십일조를 바치면서 우리의 내일을 다 함께 걱정하며 협조하는 그런 사람을 젊은 여성들이 기준을 세우기 힘들다고 하는 배우자선택의 기준을 잡는 데도 힘들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의 진짜를 찾았다고 행복해 하며 교회마루가 꺼져가라고 폴카를 추었을 때, 그리고 촛점없는 시야를 버리고 또한 많은 세상적인 번거로움을 떨쳐버리고 흰 옷의 칠폰과 함께 새벽에 일어났을 때 머리맡에 가득히도 있던 나의 햇볕은 나로 하여금 또다시 훌훌이 아름다운 옷을 벗겨 꿈야로 내쫓아 버렸다. 그렇게도 멀정하시던 사람하던 어버이는 나를 맘이 토하고 어느날 두분이 나란히 우리절을 어처구니 없이 떠나가서 버렸고 그분들이 베푸셨던 사랑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 벅찼고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세상에 미숙하기만 한 나는 나의 진 재산인 기도와 용기로서만으로 노도와 같은 악운을 이겨내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계속 나의 길을 거뜬히 걸어가고 있다. 살고 있는 방식과 살아야 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나는 그 두개의 방식을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겸손히 계명을 따를 때만이 그 관련

은 맺어지겠고 계명을 외면할 때 그 관련은 자꾸 어긋나기만 하고 불안과 초조가 그림자같이 쫓아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아직도 많은 신앙생활의 부족함을 느끼며 한때 젊은 시절의 엄극의 극중인물도 이 엄극이 끝나면 나는 또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삼가 기도하리라.

1965. 11. 9.

* - * - * - *

(28페이지에서 계속)

것은 마침내 이 적막속에서 녹아 향수를 깨달은 것이다. 하나의 고립감이 영혼을 일깨워준 작위는 정상을 유린하는 파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상을 조화시키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희생되었던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서 모든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성약과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바 되었다.

절감하여 느낀것은 외로운고 한적해도 전기의 예지는 결코 나를 슬프라 권해주진 않을 것이어서 꿈을 사모하여 새겨질 대 삼은 비밀을 더욱 굳혀준다.

작절의 시대에도 통감하지 않을 것이다. 구성없는 지루한 나서는 이토서 끝을 본다.

☆隨 想☆

“꿈을 사모 하는 뜻으로”

김 석 중



달빛이 아련한 밤 깊은 호수위의 적은 돌섬에는 은발의 미
녀가 앉아 월광욕을 하고 있었다.

백옥같이 흰 살결 그리고 수태에 잠긴 고요한 용헤에 하반
부만은 비늘이 덮인 물고기의 형상을 가진 인어인 것이다. 인
어가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은 나체가
부끄러운것이 아니고 하반부의 물고기가 부끄럽다고 한다. 고
요한 달밤이면 바위위에 홀로나와 월광에 몸을 잠그고 오히려
그 상반부의 아름다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 * * *

도시의 소음에 지친 신경은 맑은 호수의 꿈같은 인어의 모
습이 그리웠던 탓이었을까. 녹음이 우거진 질푸른 호수의 수각
에서 자는 꿈을 꾸었다. 꿈을 깨어 어렴풋한 잠결에도 물냄새
에 젖은 서늘한 진경을 감상하는듯한 쾌감이었다. 자리에서 일
어나 불을 켜고 유난히 밝은 불빛속에 숨소리 하나없이 적적
한 현실을 보고 깨진 꿈을 아쉬워해도 별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없는 고독감을 표현한 절규가 엄습해

올때는 마음이 쏠리는 방향을 찾아 곧잡 명상하기를 즐긴다.

나에게 진정 사랑하는 님이 있다면 길고 고요한 밤에 가만히 생각하고픈 사람이다. 혹 그가 나를 찾아왔다면 뒷마루 저쪽에 그림같이 앉아 주면 된다. 밤이 다하도록 서로 말이 없어도 좋다. 서로가 명상하는 뜻만 오가면 되는 것이다. 오직 월야의 정적!

아마 고요한 밤에 내가 사색하고 있는 이 덧문앞을 지나본 사람이면 정숙과 예수예찬 야릇한 정취를 느꼈을 것이다. 허나 그런 시간도 오랫동안 묘약을 찾지 못할때가 많다.

* * * *

인간은 나면서부터 고독한가보다. 그래서 부단히 무엇을 추구하려고 한다. 빈속은 먹을것을 추구한다. 공복은 채울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사람을 찾고 벗을 찾는다.

현세에서 못찾으면 내세에서 찾고 오늘에서 못 만나면 수천년전 역사에서 지기를 구한다.

인간에서 못 구하면 자연에서 구한다. 흐르는 물, 피어나는 구름 우는 벌레, 말없는 돌, 떨어지는 꽃 모든데서 자기를 느낀다. 이 무한의 동경이 입으로 붓으로 손으로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연에서 구할 길이 없을 때는 신께 구하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새 육성이 그때 나를 아필해 오는 것이다.

진지한 묵상은 기도확도 통한다.

영원한 소망임과 가슴속에 약동하는 보이지 않는 불임을 안
(26페이지에 계속)

양케이트

— 설 문 —

을사년의 한해를 보내면서 생각나는

- (1) 가장 기뻐했던 일?
- (2) 가장 슬펐던 일?
- (3) 가장 후회되었던 일?
- (4) 권하고 싶은 성구는?
- (5) 말일성도였기에 다행이었다고 생각되었던 일?

서부지부 김 식중 형제

- (1) 상향회에서 음악회를 벌려놓고 조명을 조정하며 신기론 감상하던 날 밤.
- (2) 최 승삼 자매의 돌업한 별세
- (3) 울어야만 할 처지였는데 울지 못했던 순간 (중창대회 시상 발표회 때)
- (4) 요한 14 : 6
- (5) 나에게 일이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

삼청지부 지 영달 형제

- (1) 사랑하는 사람이 소포로 보내준 첫번 선물을 받았을 때.
- (2) 없습니다.

- (3) "가장"이란 최상급을 놓고 생각해 보려니 없군요.
- (4) 시편 19 : 7-10
요한 1서 3 : 18-19
- (5) 사사건건이 다행의 연장이라 어느것 하나만을 말하기가 어렵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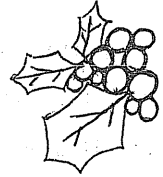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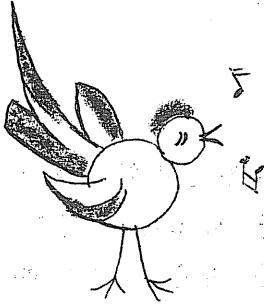
침운지부 정 대관 형제

- (1) 구도자와 복음 공부할 할 때에 나의 확신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 (2) 다음 약속시간을 정해놓고 구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 (3) 구도자와 정해놓은 약속시간에 다른 급한 일이 생겨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누구든지 사람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 10 : 33)
- (5) 영예찬 집회에 참석하고 영감에찬 말일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동부지부 최 장순 자매

- (1) 사랑한번 못한주제에 무슨 기쁜일이 있을라구요(사랑지삼 주의자 활)
- (2) 기쁨 없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 (3) 연쇄반응은 계속되는군요, 그저 무미덤덤해서 ...
- (4) 구태어 들라면 잠언들
- (5) 말일성도의, 그러면서도 상호부조회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자매로서의 자부심은 형제님들 추종불가

重唱大會 中繼



영남 지방에서 입선된 경상도의 3개지부 중창 멤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신축된 동부지부 상호향상회 홀에서 있었던 중창대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성적을 종합하기 위한 막간에 선교부장님의 도입에 동조된 말씀과 먼 남쪽나라 바닷가에서 달밤에 조는 듯 들려오는 한장노의 기타소리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포근하게 해주었습니다. 출연하는 회원들마다 어떻게 하면 더잘 불러볼가 하는 긴장된 모습은 스스로 존경의 염을 이트켜주기도 했습니다만 한편 보다 충분한 연습을 하고 왔었더라면 ... 하는 느낌이 생겼더군요.

모든 지부가 다 잘했지만 영예의 입상자는 복혼성 사중창에 삼척지부, 여성 사중창에 부산동구지부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애석하게 된것은 선교부장님께서도 좋게 평해주신 부산지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教會의 各教育 機關에

入學하는데 대한 推薦件

교회 의 各 教育기관에 입학하는데 선교부장님 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음 절차를 밟아 추천을 받도록 결정되었어 오니 선교부장님 의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에 따르도록 알려 드립니다.

첫째 각 지부 의 지부장님 과 접견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회원은 지방부장님 과의 접견을 거쳐 선교부장님 과의 접견을 허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추천 받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침례를 받은지 1년 이상된 회원이라야 하며 고교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영어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과의 접견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접견 받을 것입니다.

- 가) 성적인 순결성
- 나) 교회 의 모든 역원을 지지하는지
- 다) 교회 의 기율이나 교리를 잘 받아드리며 이에 위반된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배도적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지
- 라) 정직한 직업조를 지불하고 있는지
- 미) 지해 의 말씀을 준수하고 있는지
- 바) 회원 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계명을 잘지키고 있는지
- 사)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

“1965年度 마지막 韓國地方大會”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 땅위에 세워진 지 10년째인 1965년의 마지막 한국 지방대회를 지난 11월 20일, 21일 양일간에 서울 지구 대회를 선교부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특히 제일총회에서 선교부장님께서서는 "정직"에 대해서 강조해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회원들이 참으로 많은 감화를 받았읍니다. 또한 같은 제일총회에서 지방부장님은 한국성도들의 나아갈 길을 열렬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방대회에 참석한 동부지부 회원들:



이호남 지방부장님의 가족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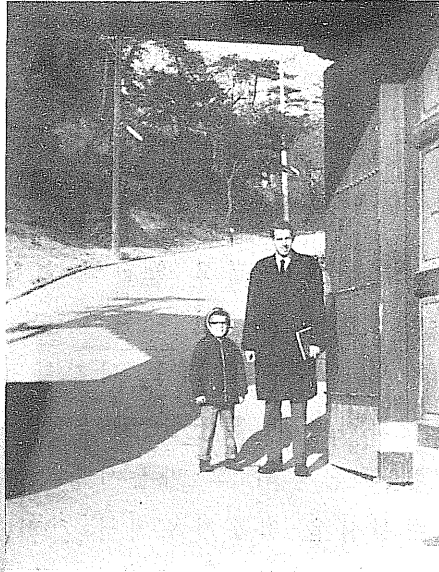


지방대회날 한인상장노의 가족이
김도필차매를 모시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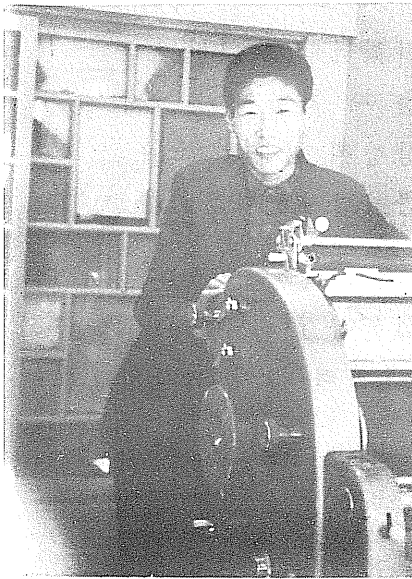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한 차종환 형제님(제1 장노
정원회 회장단 제2보좌)의 내외분.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팔마선교부장님.



망중한 귀염동이
“드와이트”와 같이



“성도의 벗”과 “화이트·필트”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원 형제

나에게 마이크를....

섭의의 경쟁은 장려해야 할 일이나 때로는 이 경쟁이 승리에 급급하여 부정을 조태할 수가 있다. 지난번 지방부 삼향회 주최 탁구대회에는 일부 지부에서 무자격 선수들을 출전시켜 삼향회 활동의 취지를 아직도 회원들이 모르고 있는가 하는 섭섭한 느낌을 주었다. (식)

* * *

지부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열전에 열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소게임이 벌어졌던 지난번 탁구대회에 응원을 하던 많은 회원은 자기 지부의 선수의 승리를 다짐하러 사과와 사탕, 비스킷으로 선수를 위로했다. 흐뭇한 광경이었다. 조그마한 자기의 호주머니를 던진 회원들의 그 마음씨를 기뻐했었다. 그러나 열전이 가시고 시상식을 청운지부에서 가졌을 때 강담에 흠어져 있는 사과 부스러기 과자껍질을 치우던 한 삼향회 간부의 모습은 처량하기만 했다. 그 다음날이 거룩한 안식일이었다. (판)

* * *

사랑, 이해, 친절, 얼마나 바람직한 덕성들인가! 그러나 그것이 과열 상태에서 부작용을 가져온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

과 이해와 친절을 받는 모든 "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과잉친절과 필요이상의 관심은 "간섭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간섭의 악순환"은 모든 "나"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은 상식으로도 통하는 말이다.

한해가 또 저물어 간다. 이해가 다 저물기 전에, 그리고 성탄절이 오기 전에 우리 참된 사람과 이해와 친절을 손질해서 간수해 둘이 어떨가.

"소근 소근, 수근 수근, 숙덕 숙덕, 쉬- 쉬-" 이러한 따위의 병폐도 엉뚱하게 친절과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서 선과 의와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모든 "나"를 위해 과감히 수술해 두는 것은 "대야"를 가꾸는 일이 아닐런지. (달)

* * *

아름다운 합창을 들을때 대체로 우리는 피로를 씻게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잃어버렸던 의미들을 기억 하기도 한다.

노래를 할 수 있는 마음이란 지극히 정돈된 순수한 마음인 것인데도, 한국의 전 성도가 모인 지방부 중창 대회에서 자기가 소속된 지부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공정치 못한 배점을 한 성도가 있었다니 한번 반성해야 할 일일것 같다. (영)

各支部 消息

서부 지부

— 한 가을밤의 사건은 —

금빛 바람이 가슴 끝을 여미는 시월하순의 한밤에 펼쳐진 사건은 서부지부의 아쉬운 한 기억이었으니 제하여 "추야 음악회"란 아름다운 행사였다.

여덟개의 하얀 테블에 꽃꽂이를 장식하고 각기 구름별로 모여앉아 오색테프와 색등의 부드러운 불빛은 백오십여 감상객의 소음이 모조리하여 싱그러운 선물의 환희에 잠겼었다.

바이올린 협주곡도 좋았고 사회에서 초청한 소프라노 독창이며 무럭무럭 김나는 코코아가 담긴 예쁜 무늬의 찻잔을 기우릴때 애수를 노래하는 말세리노의 복사중창이 사랑하고프도록 우리는 음악속을 살고 있었다.

— 농구대 시설 —

익센 돌맹이와 흙, 나무 뿌리가 얽힌 폐허된 땅을 평지로 고트느라 무작정 팠다. 흘린 땀과 손에 엉킨 물집도 경비 층당에 애먹던 모든것의 기억보다는 완공된 지금은 이미 친숙한 운동구이다. 기동은 선교부에서 지부장과 선교사의 후원과 상향회 역원의 직접적인 주선으로 준공된 협동의 상징이기도하다.

— 경건을 시도하는 예배시간 —

교회는 주님의 집임과 나는 청하심을 받은 손님이라는걸 명기할 새 방안은, 첫주 지부역원회에서 중시된, 대 예배시간에 시달할 준수 사항이었다.

— 이별을 원치 않는 것은 슬픔 때문 —

인생을 두상하게 저버린 최 승삼 자매는 다정하신 인정의 여운만을 남겨주고 우리를 떠나시고 말았다.

선교부장의 주제로 열린 영결식은 예고 없던 슬픔을 주었고 "상호부조회"를 인도하시던 회상속에 싫어도 맛보아야하는 이별은 있었다.

부산 지부

부산지부는 다쳐올 "크리스마스"의 큰 행사의 하나인 "칸타타"를 아주 훌륭히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이웃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우리 물론 성도들의 재능과 참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일 것으로 생각하여 "벤톤"지부장님의 큰 열성과 지부회원들의 따듯한 협조로 큰 성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일반인들을 위해서 시내의 큰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원들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세요.

* 예선 선발팀으로 뽑힌 부산지부 탁구 선수들은 서울서 열린 전국대회에 참가 영예의 우승을 하여 부산지부의 탁구 실력을 다시한번 과시했으며 여러 회원들을 기쁘게 하여 지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장로님들 이하 여러 회원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삼청 지부

삼청지부에서는 가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7일에는 김도필, 이금자 자매의 말씀을 들은 후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결혼하신 분을 위하여 모임을 가지는데 그 동안 선교부장 내외와 지방부장 내외분의 말씀을 들었다.

삼청지부 주일학교 기초교리반에서 주최한 복음씨미나가 지난 11일 선교부장 내외분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구원의 계획"을 주제로한 이번 씨미나에서는 워커장토, 고원용, 서희철, 지영달 형제와 선교부장 내외분이 말아서 말씀을 해주셨다. 네시간 동안에 걸쳐 계속되었지만 50여명의 청중들은 진지한 가운데 경청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교리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모임이었다.

이날 상호부조회에서는 점심과 다과를 준비하여 제공했다.

— 자랑스러운 물톤의 딸 —

지난번 건축가 협회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주택설계 공모전에 "지현이네 집"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삼청지부의 최순자 자매는 영예의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방년 20세로 홍대 2년에 재학중인 최 자매는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지 못한 미련이 있어 더욱 실력을 연마하여 개인집도 시도해 보겠다고, 강한 일일수 밖에.

청운 지부

매정한 한기가 오듯하여 아쉬움을 떨치고 가는 추풍도 잠시 숨을 몰아 쉬어가는 인왕의 기술.

뜨뜻한 얘기가 여기 또 있다.

11월 10일 수요일 밤. 청운지부 상호부조회 주최로 자매들 간의 노고와 우호 증진을 위한 모임이 있었으니, 이튿하여 청운지부 상호부조회 잔치라.

자매들의 요리솜씨도 솜씨려니와 요리특기가 떡국이라, 호트룩 소리에 초청된 지부장단 및 지부 선교사들은 집짓 자매들의 웃는 소리로 오인 했다고 ..

이 속에 한걸음 더 내딛는 지부의 확목과 발전은 약속되어진다.

* * *

지난 11월 14일을 기하여 여지껏 중단중에 있던 유년 주일 학교가 선교부 시범케이스로 청운지부가 선점, 발족하였다.

어린 동아리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눈은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티없는 마음에 영원히 감이 하길 바라고 싶지 않는 마음 없으리. 청운지부 유년주일학교. 상함이 각 지부에 미칠터이니 유년부의 성패가 자못 기대된다.

(건)

꼬마 상식

요즘 권투 레슬링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경기들은 한계체중에 따라 급수가 정하여져 우리 성도들도 꼬마 상식으로 한계체중을 알 필요가 있어 여기 그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한계체중: 권투, 레슬링, 역도 등에 있어서 체중별 계급을 정한 중량 한계.

한계 체중 (단위 KG)			
급 \ 종목	권 투	레 슬 링	역 도
플라이	51 이하	52 이하	56 이하
밴 텀	51 - 54	52 - 57	56 - 60
페 터	54 - 57	57 - 62	60 - 67.5
라이트	57 - 60	62 - 67	67.5 - 75
라이트 웰 터	60 - 63.5	-	-
웰 터	63.5 - 67	67 - 73	-
라이트 미들	67 - 71	-	-
미 들	71 - 75	73 - 79	75 - 82.5
라이트 헤비	75 - 81	79 - 87	82.5 - 90
헤 비	81 이상	87 이상	90 이상

문제 풀이

다음 빈칸에 맞는 수를 넣으시오.

1. 하나님은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_____ 계명을 주셨다.
2. 우리는 _____ 개조의 신앙개조를 가지고 있다.
3. 신회에는 _____ 분이 계시다.
4.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제자는 _____ 사람이었다.
5.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_____ 가지 복을 선포하셨다.
6.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_____ 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7. 예수께서 다섯개의 빵과 _____ 마리의 고기로 오천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은 먹고남은 것을 _____ 광주리나 거두었다.
8. 예수는 미 대륙에서 _____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9. 이스라엘의 _____ 지파가 있다.
10.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동생 _____ 명을 애굽에 노예로 팔았다.
11.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힌 후 _____ 째 날에 부활하셨다.
12. 누구든지 자기 수입의 _____ 을 십일조로 낸다.

멀리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조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친절히 보내주신 "성도의벗" 너무 반가웠습니다. 나의 반동무들과 함께 또한번 조국의 발전을 자랑할 수 있는 산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지의 훌륭한 지방부장단의 사진은 이곳 누구에게나 자랑거리였고 그 내용이 말하듯 뚜렷한 교회발전에 멀리서나마 무척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신은 멀리있으나 마음은 항상 여러분께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워드의 집회에 초대되어 이야기할 때마다 젊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자랑합니다.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커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워한 만큼 우리들 멀리서나마 항상 조국의 교회소식을 그리워하고 서로 편지를 교환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경쟁적으로 서로 묻곤합니다.

저의 학교는 주립대학이지만 반수 이상이 물론학생이며 교정안의 유. 에스. 유. 스테이크에는 15개의 워드가 구성되어있어 감독은 대개 교수들이고 회원은 남녀대학생으로서 교회 봉사 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을보면 배울바 많습니다. 또한 말일성도 인스티튜트가 교정안에 설치되어 누구나 과외로 교리공부를 할수 있어 저역시 이번 학기에는 물론경만을 택하여 훌륭하신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과목 이외에 복음공부를 할수 있는 훌륭한 이 기회를 늘 감사합니다.

제가 생활하는 기숙사는 대개 귀환선교사들이라서 매일 신앙적 생활에서 즐거움과 발전을 실재로 느낄수 있습니다. 한국

에서 돌아온 조지장토, 켈슨장토는 같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한국을 자랑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켈슨장토, 리쉬만장토, 버크장토의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아들을 한국에 보낸것을 역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돌아온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 유학생 진도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12월 5일에는 선교사 부모님과 모든 한국 학생들을 초대하여 파티어 사이트회를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쉴트레이크에서 귀환 선교사회에서 모든 옛날 선교사들을 만나서 여러 한국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고 특히 칼 부장님의 한국을 사랑한다는 감격적인 말씀은 저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도저모를 손수 보여주셨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고 설명에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날 때 맛있는 약식을 만들어 모두 한국음식을 다시한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타주는 '어디서나 참된 교회의 발전상을 뚜렷이 보여주며 역대대관장과 개척자들의 유물을 직접 만져볼수 있어 저의 신앙을 더욱 커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신 지도자들의 다뜻한 인상은 참 교회의 빛이 되어줍니다.

학교공부에 무척 쫓기고 있어 일일이 여러분께 인사 건하지는 못해도 저희들은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건강과 조국의 교회 발전을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더욱 조국의 교회는 발전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한인삼장토, 황종섭장토의 훌륭한신 선교사들을 항상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호남 지방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께 감사하며 팔머 선교부장님의 훌륭한신 지도력을 감사하며 모든 선교사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육신은 멀어도 마음은 조국에 있습니다.

토건에서 홍우식 올림

Christmas Party

主題 ◇ 만백성의 왕

1965·12·24·6:30



☆ 선교부 강당 ☆



* 회비 : 학생 * 10w.
 성인 * 20w.
 가족 * 50w. <5명이상>

10월 한국 지방부 침례자 명단

서부 지부

한 홍자, 이 광섭, 박 순자, 최 지선, 김 인애,
김 삼진자, 이 봉춘, 이 찬기, 유 인숙, 신 채옥,
왕 길자.

삼척 지부

이 영선.

부산 동구

한 채심, 양 명주, 박 정길

부산 지부

차 보환, 최 대원, 장 재환, 장 유수

청운 지부

이 강홍, 백 종억, 김 명신, 김 영진

동부 지부

김 명순, 최 신희, 오 우년, 전 병환, 황 영선

알림

— 서울중앙 텔레비존 방송을 통하여 물론 전국에 소개 —

텔레비 방송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15분동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중앙 텔레비존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선교부에서는 새로이 선교부 합참단을 조직하여 푸토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회원은 이 합참단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이 푸토를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청운동 선교부 강당에서 서울의 각 지부 회원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 모임은 선교부장님의 부인 되신 팔머자매님이 총 감독하여 모임을 준비하고 계셔 준비성 많으신 분으로 정평받고 계신 팔머자매님의 역작이 자못기대됩니다.

편집 후기

한해를 또 이렇게 지내놓고 나서, 어쩔수 없는 누우침의 자리에 나와 서야 했습니다. 칠전 팔기! 그러나 내일은 역시 생명의 빛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음질을 약속한 이래 두번째의 성도의 벼를 여러 성도 앞에 내어놓지만, 마음에 설계했던 모두를 다 실지 못한 서운함과 부끄러움은 또다시 내일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바쁘신 중에 기고해 주신 여러형제 자매님들께 이 작은란을 통하여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편집실뒤에서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편집실은 여러분의 행복한 성탄과 대망의 새해를 빌어드립니다. 다음호에 다시 뵈겠습니다.

편집실 막동이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 所 錄)

- 宣教本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番地
清雲支部 } ⑦③ 3995
- 三清支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② 3596
- 東部支部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⑨② 1005
- 西部支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⑦③ 1208
- 大邱中央支部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② 6659
- 釜山支部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② 1371
- 東區支部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성 도 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